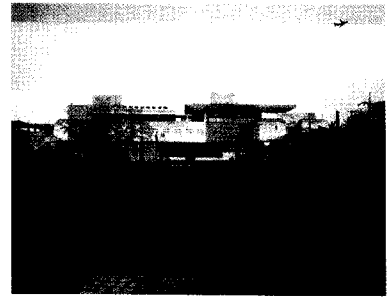


옛 제주대학본관의 추억

A Memory about old main building of Jeju national university



김도균(Kim Do-kyun), m.kju8909, 94x120cm, C-Print, mounted on plexiglas, wooden framed, 2009

우리나라의 현대건축 논의에는 자주 김종업 선생의 제주대학본관이 등장한다. 이 건축이 사라져 버린 지 십오 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러 우리들 기억에서 희미해졌어도 불쑥 불쑥 그 모습이 되살아난다. 가까이, 지난 이월 한 달 동안 건축저널 『공간』이 지령500호를 기념하여 기획하였던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이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있었다. 이 전시회의 메인 이미지가 또 이 '제주대학본관' 이다.

김종업 선생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설계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현대건축 원리와 한국의 서정을 혼용시켜 한국모더니즘 건축의 새장을 열었다고 칭송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후속 작이 '제주대학 본관(1964년 설계)' 인데, 설계 당시의 명칭은 '제주대학 법문학부 도서관 및 교수연구실' 이었다. 전면보다 낮은 지면 층에 학생 회의실과 가정학과의 실습실, 학생식당, 주 층에 도서관과 행정실, 3층에 교수연구실, 옥상 층에 대학박물관과 옥외 강의실이 있는 다종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이었다.

이 건축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쓰자면 '21세기의 건축' 이다. 시대를 한 세기나 앞서 갔노라는 일같이 다. 전작이자 대표작으로 보는 프랑스 대사관에 비하면 이 건축은 모더니즘의 전범에서 큰 일탈을 보여주었다. 모더니티의 특징인 기하학적 추상과 합리적 성향, 기능적인 요구에서 멀어져있는 것이다. 분명한 곡선 표현이 주조가 되어 유기적이고 관능적이다. 특히 각층으로 오르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경사로들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어우러져 여유가 넘친다. 작가는 이 대목을 낭만이라 설명하였다. 제주도의 낭만이라고...

다수의 비평가들이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미술평론가이셨던 고 이경성 선생은 구체 언급이 없이 프랑스 대사관 이후 작업들에 별다른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김 원 선생도 그리고 김봉렬 교수도 이 건축은 "과다한 표현 욕구와 개인적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평하였다.

그러나 작가가 21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건축은 후기모더니즘을 예감한 선진적 징후를 이미 반세기 앞서 보여준 역작임이 들어나고 있다. 급세기에 들어서 우리들 건축에는 감성 우위 그리고 표현과잉이 만연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부정형 건축으로 불리는 동대문역사 공원의 디자인 센터가, 한강의 인공섬 후로라와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가 이 건축에 주어졌던 '과다하다' 와 '과시' 라는 평가를 무색하게하고 있다. 저들에 비하면 이쪽은 오히려 절제를 보여주었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3년 2월 5일에 한국건축가협회가 이 건축 보존을 위한 행사를 벌였었다. 건축계의 고 김희춘 교수, 이광노, 엄덕문 노교수와 고 한창진, 강병기 교수를 위시한 원로 분들, 4.3그룹 그리고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주축들이 대거 제주로 출동하여 이 건축의 수명연장 대책을 제시하고 이곳의 문화예술계의 인사들과 함께 이 건축이 건강하게 재생되어 한국현대건축사의 중대한 자산으로 남아야 마땅하다는 성명을 채택하였던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1995년 5월에 철거되어 버려서 한국건축 역사의 한편도, 제주대학교 역사의 상당 부분도 지워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 건축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루어 내지 못할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참 귀중한 건축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 건축을 이따금 한 번씩 전시회에서 흑 책 속에서 가신 분의 영정처럼 흐린 모습으로 만난다. 나는 별나게 이 건축에 얽힌 추억이 많다. 이집의 출생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전 생애의 애환을 목격하였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사람이다. 그래서 이처럼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가슴앓이를 한다. ■



김석윤 / Kim, Seok-youn, KIRA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 홍익대학, 국민대학 대학원
-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협회상 수상
- 제주도 문화상(예술부문) 수상